

교회 목표

신명한 예배
찬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주간 중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니라
(골로새 3:12)

발행처: 대한예수교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Œ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달음질”

중현체육대회, 5월1일(화) 오전9시~오후4시, 수도전기공고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마다 “달음질”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다(고전 9:24,26, 갈 2:2, 빌 2:16, 살 후 3:1).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참가해야 할 “달음질”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을 향하여 세속(世俗)의 달음질을 포기하고, 영원(永遠)을 향한 달음질을 하라고 소리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옆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하단한 중인들이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함께 외치고 있다(히 12:1).

5월1일, 중현의 모든 성도들이 ‘수도전기공고 고통학교’ 운동장에서 육체의 달음질을 하게 된다. 주께서 주신 힘을 다해 경기에 임하면서, 예수를 향한 성령과 최선을 다하는 헌

신을 배우도록 하자. 정해진 규칙대로 형제와 자매가 협력하여 한 마음으로 경기에 참가하면서 믿음과 기도로 하나가 되는 법도 배우도록 하자. 그리고 체육대회의 모든 일들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달음질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자랑할 것이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일깨워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중현체육대회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도록 성령의 통치하심을 간구하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생명의 말씀을 받아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함이라”(빌 2:16)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연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루는 자마다 모든 일에 철제하나니 자의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서 복종케 할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라”(고전 9:24-27)

학습 세례식(오늘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구주의 순결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대들이 겪어야 할 죽음에 이르는 형벌
구주께 전가(轉嫁)됨으로
인자(人子)의 몸은 찢겨졌으며,
그대들의 영혼을 다듬었던 죄와 허물
구주께 전가됨으로
인자의 순결한 피가 모두 쏟아졌음!
그 까닭에
그분의 사랑
그 언약함 속에서 흐른 물과 피가
그대들의 죄를 씻기고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천부(天父)의 성소 앞에서
그분의 인자하신 은혜를 덧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 3:17).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모두 137명이 한
습세례식에 임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 2주 동안
신세에 필요한 성경공부와 문답을 마치고
성세에 임하게 되었다.

학습 42명(남20명, 여22명)
세례 36명(남12명, 여24명)
유아세례 28명(남13명, 여15명)
입교 28명(남16명, 여12명)
개종3명(남1명, 여2명)

교회의 중인을 앞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
으로 은혜를 입게되는 이들에게 이번 성세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의 시간이 되고 하
는들의 유상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격려하고 기
도해 주시길 바란다.

신학 칼럼

교회의 회의

교회는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조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말한다. 교회는 그 역할과 성격에 따라 전두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유흥교회와 무형교회, 유기체적 교회와 조직체적 교회로 표현하기도 한다. 교회는 성령의 따로 성도들이 연합되어 이루어진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조직을 다한 것이 조직체로서의 교회인 것이다. 지상(地上)의 교회는 그 특성상 전두적인 교회로, 유흥교회이며, 조직체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지상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신앙이 완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야 하는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완전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지상의 교회가 인간의 연약함과 사단의 공격을 극복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조직체적 교회안에 ‘회의(會議)’가 있는 것이다. 이 회의를 통하여 현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 확인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결을 더 나아가게 된다. 교회의 모범적인 회의로서는 예루살렘 공의회 있다(행15장). 당시 이방인 전도에 대하여 유대주의자들과 바울 일행 사이에 변론이 있었다. 이 문제가 결국 예루살렘 회의에 상정되었고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명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여 회의를 나라를 확장하게 된다. 그 후에도 지상의 교회는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칼케돈 회의 등을 통하여 중요한 교리를 결정하고 확인하였다. 한편 지교회 회의로는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 등이 있고 그 상회(上會)로는 노회와 총회가 있다. 그러나 회회가 무조건 공적적이지만은 않다. 회회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잘못 결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회의에 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여야 할 뿐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능력을 사모하여야 한다. 만약, 회의에 참여하는 자들이 철저하지 복음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목적이나 이기적인 태도로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회의를 오히려 생기기 되며, 불만이 생기기 되어, 결국 회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 교 성(목사, 16교구 지도)

2001년도 제2차 학습세례식 안내

4월 29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지배 찬양예배, 본당)	유아세례식 (오후 3시, 배나눔홀)
----------------	------	-------------------------	---------------------

2001년 제3차 성찬식: 5월 6일(다음주일) 1부~5부

5월 위임목사 실교

일시	예배	본문	제목
5월 6일	2·3·5부	눅 22:14-20	주의 만찬
5월 13일	3·5부	렘 31:1-9	큰 무리
5월 20일	1·3·4부	수 10:22-27	원수의 장례식
5월 27일	3·5부	마 16:21-27	십자가의 길

2001년도 일꾼선출 공통회의 개최

일시: 2001년 5월 6일 4부 예배 후
장소: 중현교회 본당
대상: 중현교회 세례교인 전원
의제: 장로 및 안수집사 선출

Lord's Supper

(Luke 22:14-20)

And when He had taken some bread an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And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W**hen the hour had come,” Jesus began the Lord's Supper. The time has come for us today to be at the Lord's Table. At this time, we have to begin the Lord's Supper just as Jesus began it long ago. He “earnestly desired” to eat this meal with His disciples before He suffered. He anxiously waited for the will of God to be done.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God said that the Messiah would come and God's new covenant would be established. Jesus came and He died so that you could live. He came because He wanted to save the world. Here, in today's Bible verses, Jesus waited and deeply longed to share His last supper and its meaning with His disciples. He wants us to “do this” in remembrance of Him. Now, as we come to the Lord's Table, we have to think about this time that Jesus earnestly desired. Let's find out the meaning of this important time.

This special time is a time of refreshing, a dedication time. Think of how airplane pilots flying at 30,000 feet must make important checks, like in direction, altitude, and fuel. If they don't make these checks and the fuel tanks happen to be low or empty, and they still want to fly a long way, everybody in the plane is likely to die. Today, you have to check and re-check where

you are headed. You have to dedicate yourself to this calling. The Lord's Supper leads us in the ways we need to go and it refreshes us with new life. When we check ourselves, we find that we are far off from God because of our sins. Maybe we find that our fuel tanks are low and we are approaching death. Let's go to God's place and be filled with His grace.

Jesus always lives in the middle of God's will. During His earthly ministry we see that He worked and died in God's will. He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which was God's will (v. 19). He also said,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v. 20). This is not a human innovation. No human could even imagine such a way. This is God's will. Jesus focused on God's will. He was right in the middle of God's will, not above or below but smack dab in the center. When you aim, your goal is to hit the middle of the target. Where are you standing? Where is your life going? Sin takes us away from God's will. It makes our vision blurry, and our aim off center. When we look at Jesus, He was always in the exact middle of God's will. Even knowing He was going to suffer and die, He was happy, giving thanks to God (vs. 17 & 19), still doing God's will. When we partake of the Lord's Supper we

have to be in the middle of God's will.

With death so near, Jesus still witnessed God's love. This time we really need to search our hearts, “But a man must examine himself, and in so doing he is t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For he who eats and drinks, eat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1 Cor. 11:28&29). You have to search your heart. Don't look at others, don't think about the believer sitting next to you, examine yourself. If not, you harm yourself. Be honest with God. Simply think of where your heart is right now and the things that are bothering you. That's sin and that is what you must confess. When we read of how Peter told Jesus, “Lord, with You I am ready to go both to prison and to death”, we realize that Peter didn't search himself (see Lk. 22: 33). No, he failed. He denied the Lord three times. After he took the Lord's Supper he didn't search himself and he made big mistakes. Please don't make this mistake.

At this Table, Jesus asks us to remember Him. He asks us to remember His death.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of the Lord's Supper, not other meanings, just His death. His flesh was torn, bruised, nailed, spit on, and insulted because of us. Are you thinking about His

death at this moment? Or are you asking the Lord to give you more money and happiness? Please don't think like this, think of His death and what it really, really, means for you. This time at the Lord's Table is a humbling time. Bring down your pride, whether its your education, career, wealth, fame, or fancy, just break it and simply confess to the Lord that you were wrong and have sinned. Ask Him to forgive you. Let Him start to change you and renew you. Amen!

Right after the disciples finished the Lord's Supper we find that “there arose also a dispute among them as to which one of them was regarded to be greatest” (v. 24). They weren't humble. They immediately started down the wrong path. Please don't go that way. At the Lord's Table you need to be humble. Jesus is telling you that the bread and cup you are about to eat and drink represent His body and blood. He gave His body and blood for the world, for the Gentiles. Let's stop at this moment and start to re-think. Let's hear His voice. Can we start again? Can you have a new dedication toward the Lord's Supper? Start thinking about His death. Be humble in His presence and appreciate God's will which is love. Let's worship now, and I hope this is truly a wonderful Lord's Table. God bless you. 



김성권 목사

주의 만찬

(눅 22:14~20)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때가 이르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주의 만찬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께서 오래 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성찬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난받으시기 전에 이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체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며, 당신의 새 언약이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의 마지막 만찬과 그 만찬의 의미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간절하게 기다리고 열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께서 진정으로 갖기를 원하셨던 이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이 귀중한 시간의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세례를 헌신하는 시간

주의 만찬은 믿는 자로 하여금 자신을 세례를 하고 헌신하도록 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3만 피트 높이의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방향, 고도, 연료와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점검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지 않거나 또 연료가 모두 소모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행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보나마나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의 식탁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인간이 마땅히 가

야할 방향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새 생명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연료가 거의 바닥나서 곧 죽음으로 치달는 비행기와 같은 상황에 놓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나아가서 그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으시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시간

예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지상에서 일하시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19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0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인간이 고난한 의식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이러한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서 높거나 낮은 곳에 있지 않고, 정확히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마치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거행할 때 목표의 한 가운데를 거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뉘어채면서,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곳을 거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입니다. 예수는 언제나 하나님 뜻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비록 고통을 당하며 죽으실 것을 이미 아셨지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17, 19절)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한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시간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시간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전 11:28-29).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성도들의 식탁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의 영혼만을 살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신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은 어디에 있는지 살피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입니다. 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어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읽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눅 22:33). 결국 그는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먹은 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아 큰 과실을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

예수께서는 주의 만찬에 동참한 우리에게 자신을 기억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주의 몸은 찢겼고 땅들었으며 못 박혔고 침 뱉음과 모욕을 당하

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더 많은 돈과 행복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의 죽으심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여러분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행하는 주님의 만찬은 겸손함이 함께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과 교육 수준, 직업, 부와 명성, 호사함,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께 죄인 됨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고 만드실도록 자아를 내어드리십시오. 아멘!

겸손을 배우는 시간

우리는 제자들이 주께서 배우신 만찬을 마치고 난 즉시로, “누가 크냐 하는 다름(24절)”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겸손하지 못하여 곧바로 잘못된 길로 빠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만찬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주의 만찬은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떡과 잔을 그의 몸과 피라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몸과 피를 세상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순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만찬을 향하여 새로운 헌신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내어드리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십시오. 이제 함께 경배드리며, 이곳이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만찬의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

에비턴 세계 복음화의 최종주자

몽골리아(MONGOLIA)

흔히 몽골하면 말타는 초원을 생각한다. 그리고 '젠'이라는 전통가옥을 연상한다. 그러나 한국에 온 몽골인 중 절반은 그런 사람이 아닌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왔다. 최근에는 방송사에서 '몽골리안 루트'라는 다큐멘타리와 제2호에서 말을 타며 묘기를 부리는 일 가족을 상영한 바 있다. 이처럼 오늘날 몽골에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제적 이유, 또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몽골에 접근한다. 그러나 우리 천국교회의 외신부 교사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선교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 가능성을 본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나라이다. 사회주의가 물러가고 지금은 민주주의 체제이지만 아직도 곳곳에 사회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다. 특히 종교법이 그렇다. 전체 인구 260만 명 중 수도인 울란바타르(붉은 영웅이라는 뜻)에만 7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현재 약 1만 2천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치해 있는 몽골은 오랜 가뭄과 지난 겨울의 추위로 인해 가족이 없어 죽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 곳 한국에서 일하는 몽골인들의 자국에 대한 경제적 기여는 대단한 것이다. 일례로 한국에서 일하는 몽골 사람들이 송금하는 액수는 몽골의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몽골 내 교회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되나 연장하는 데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여부가 중요한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

유목민족인 몽골은 전통적으로 라마불교를 믿는다. 그러나 명목상의 불교이다. 그 나라 한 가운데에는 '갠단'이라는 큰 사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봉은사라고나 할까? 또한 집집마다 자그마한 불상이 있다. 몽골은 오라를 침략하였던 역사가 있지만 이제 그들은 복음으로

오려려 우리에게 침략(?)을 받고 있다. 막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 복음의 능력 앞에 그들은 다 돌아올 것이다.

천국교회 외신부의 몽골팀은 지금 제 1교육관 5층에서 독립집회를 드린다. 몽골인 리더들이 사회를 보고 기도, 특송, 광고를 하며 자발적으로 소독의 심부의 일을 정성껏 준비한다. 또 체불임금을 받게 되거나 부상에서 나올 때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금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다. 매주 주일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수시로, 몽골 지도 전도사님과 선생님, 리더들은 심방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생활에 대해 상담을 하며 교제를 나눈다.

최근에는 매주 60-70명의 형제·자매들이 나와 성경공부와 집회, 그리고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오후에는 자체적으로 환경을 장식하는 젊은 지체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몽골어 신구약 성경이 발간하여 현재에 배비치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성경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세신자들에게 신약성경과 찬양 테이프를 매주 정성껏 포장하여 복음과 함께 배달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울양키라는 초등학생이 의정부의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그 공장의 모든 몽골사람들이 오기도 하였다.

또한 주일 3시부터는 세례받은 리더들과 헬프들이 외국인 LMTC에 참석하여 기독교 신학과 올바른 신앙생활, 성경을 배우고 자신들이 올바른 신학과 믿음, 신앙생활로 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앞으로 현지 지도자 양성의 최우선 과제가 된다.



앞으로 몽골팀은 주의 복음을 맡은 전도자로서 중앙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동북아시아를 달리며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것이다. 그날이 오도록 지금 모든 교회의 기도와 섬김, 그리고 관심을 요청한다. 관심있는 성도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교육관 109호로 오면 몽골어와 함께 몽골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기도제목

1. 몽골 리더들이 믿음으로 비로 사도로,
2. 전도사님과 교사들 모두 믿음으로 사역을 할 결단하도록,
3. 복음이 저들에게 깊이 자리잡도록,

청송의

푸른

물결이

복음의 · 아름다운 · 발걸음

오늘 하루도 전도자의 삶을

김성호 (임사, 3교구)

이런 새벽을 알리는 시계소리에 모든 일을 뒤로한 채, 두 아이의 동글이를 누님께 맡기며,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머리에 그려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목사님, 장로님, 연로하신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정회원을 그리고 오벨전강대의 미소가 벌써부터 주께서 내리주시 은혜의 단비속에 젖어가고 있었다.

수줍은 듯 두 볼에 붉게 물든 전달래와 첫들 맞은 우리 아기의 노랑 지크리 같은 게나리까 차창 밖 산과 들 곳곳에 펼쳐져 있었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솜씨 앞에 저절로 입술이 열려 찬양의 소리가 차 안에 메아리쳤다. 잔잔한 강바람도 어느 샌가 늘어진 배드나루 가지를 한들한들 흔들여 주고, 계곡계곡 마추션이 산과 저 산은 청풍의 이정표를 알리는 듯 서 있었다. 대 옛시 시간을 달려왔을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미로에 지나가 되어 성령의 줄로 묶여질 자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혼들리는 차 안에서 35명의 교정회원의 기도소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가서는 안돼.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만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야."

덜컥 열려버리는 쇠 문소리. 그 동시에 물결치는 찬양의 소리, 무엇인가 바쁘게 움직이는 내 가슴의 소리, 넓다란 강당 안은 300~400명의 수감원들이 손뼉을 치며 목청을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다.

마음을 모으고 예배를 시작한 시간은 오후

2시. 그들은 '내 주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의 찬양을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렸고, 주님께서는 요벨 찬양대를 통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로 찬송하게 하셨다. '아멘' 하며 회답하는 수감원들은 '내 영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애가대 목사님의 말씀에 다가가고 있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요일 4:7-10)."

"생명을 얻는 모든 것들은 사랑받기를 원한다. 사람의 사랑은 포기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한 없다. 결코 그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시도록 끝없는 사랑을 하신 것이다. 이 진리를 믿는 자만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천국을 안다"는 목사님의 설교에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던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해 주려던 나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조건없는 그 사랑에 게을렀던 나의 시간을 회개하고 인연하게 지내오던 날들을 가슴에 아파했다.

목마른 자들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했고, 교정의 사역자들을 위해 물부릿물이 있어야 했다. 아, 그랬구나! 청송의 푸른 물결이 두 손을 흔들 때 찢어지는 듯한 가슴으로 나지막히 대답했다. "꼭 기도할게요."

(교정지도)

3월 중순, 꽃샘 바람이 다소 있는 맑은 토요일 오후, 교회 주변 예배당을 먼저 찾은 사람들을 위한 교구별 전도 모임이 있었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교회에 도착하여 목사님과 예배를 드린 후, 우리는 3교구 전도지역인 역삼동으로 출도 및 노방 전도를 나갔다.

"예수께서 건지내어 생명을 살리자"라는 교구 표어를 되새기며,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는 소동과 고모라 성과 같은 세상으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갔다. 역삼동 지역을 각 조별로 구분하여,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우리 남성들은 사업장 위주로 방문, 전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소 머뭇거림이 있었으나, 한 집 한 집을 방문하며 자신감이 생겼고 우리 교구 주변의 많은 지역 주민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려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도지 놓고 그냥 가세요.", "우리 다들 종교가 있어요.", "관심없어요.", "일요일도 일해야 돼요.", "우리 가정 다 교회 떠나고 나는 안나가요." 여러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그 때 그 때마다 격려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며 "그래, 이렇게 우리 교구 주변지역을 지속적으로 전도하면 결실이 있겠구나." 생각했다. 그 날의 전도가 의회소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느끼며, 우리가 생활에서 모든 모든 상황이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전정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나라 전체 상향된 사람에게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 데 과연 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다. 한 두번 지나가는 이야기 하듯 주님을 전하고 그냥 포기하거나 잊고 지나치는 않았는지 마음이 무거워 간구하게 되었다.

주님!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소서 기도를 해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전도의 사명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함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이 땅의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어서 돌아오오!

5. 20 고등부 총동원전도주일, "옛 친구 찾기, 새 친구 찾기"

조 옥 자 (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요즘 청소년들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가 무척이나 힘들다.

고등부에서는 그동안 사용하던 '비전 7000'이란 용어를 '총동원전도주일'로 바꾸며 '옛 친구 찾기, 새 친구 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러 차례 평가를 거치면서, 행사로서의 의미가 큰 이벤트가 아닌 기존 집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자칫 물랑주의와 인본주의로 전도의 본질이 흐리게 될 수 있기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들은 자제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기로 하였다. 특히 잠정적으로 목민해운전 전도 품앗이는 일절 근절시키기로 한 것이 이번 운동의 특징이다.

이번에는 우리가 품길 원하는 영혼들을 교내에서 동시에 찾고자 한다. 먼저 교내에서는 장기 결석자와 이전의 전도로 잠시 교회에 출석하였던 친구들, 혹은 대매매단 참여하는 고등부 연합회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돌아오오!' 그대를 간절히 기다리는 고등부로 돌아오오! 바란다.

동시에 교회적으로는 예수를 모르거나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학교 급우를 대상으로 새 친구를 찾고자 하였다. 이른바 고등부원은 태신자를 품어 믿음의 친구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 전도는 그 주변에서 도울 수도 있지만 전도의 긴박함과 필요를 인식한 학생이 스스로 의지를 갖고 전해야 하는 한계를 갖는다. 자아정체화 확립되어 가는 과도기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친구를 전도하여 (그녀)가 스스로 교회에 가는 때가 지났겠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나눌 수 있도록 주변에서는 기도와 격려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가 연한 순교자 같은 청소년의 신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도 도와야 할 것이다. 차세대에게 물결과 추억보다는 순수한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5월20일 총동원주일이 되었으면 한다.



원영입니다

만평

글 그림 · 김법헌



대학부 예수제자훈련을 소개합니다

윤 정 훈 (전도사, 대학부 부지도)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중환) 분파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 28:18-20) 이 말씀은 권유가 아닌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으로 얻은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마 28:18-20는 12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며 그들에게 복음 증거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1980년대 한국 교회에 도입되기 시작한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은 이미 수 많은 교회에서 실시되어 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훈련들은 교제 중심의 지식적 교육으로 전락하거나 교회 일꾼들을 양성하는 훈련기관적 변모하였습니다. 제자훈련은 지식교육도 아니고, 기능적 일꾼을 만드는 훈련과정도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감격하고 그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과정이 며 젊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훈련입니다.

과거 대학부의 제자훈련은 학년별로

단계를 나누어 강의식 훈련이나 교제 중심의 양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자훈련은 단순한 지식 전달식이 아닌 경건한 삶의 제철을 만들어 가고 성경을 깊게 이해하며 삶의 모든 부분을 균형있게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훈련은 대학부 팀장을 경험한 코학단 간사들이 인도하는 소그룹 성경공부와 교역자들이 담당하는 주제강의, 각종 모임을 통한 공동체 체험, 전도와 전교 등의 현장체험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균형있게 조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부에서 제자훈련은 가장 중심이 됩니다.

예배(Worship)→교제(Fellowship)→제자훈련(Discipleship)→사역(Service)→전도(Outreach)
제자훈련을 통해 철저한 훈련과 일꾼들은 그들 성경공부 리더와 사역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되며, 제자훈련을 끝낸 이들은 다시 간사로 세움을 받음으로 제자훈련의 재생성이 이루어집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대학부는 총동원교회의 5대 목표인 전국일군 양성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성숙된 청년들이 교회를 섬기고 이 사회와 세상을 향해 복음의 줄이 되 도록 대학부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저 산너머 먼 곳에 행복이 있다기에 찾아가다가 늘어난 울리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여 현대인들은 종종 전 감성처럼 행복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서 행복을 발견하였습니다. 청년1부에서 '팔복'을 설교하였는데, 바로 여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로 '복'은 '마커스'라고 합니다. 이는 신의 존재나 속성을 가르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이 교훈은 내게 말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주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

복이 있나

이 종 태
(강도사, 청년1부 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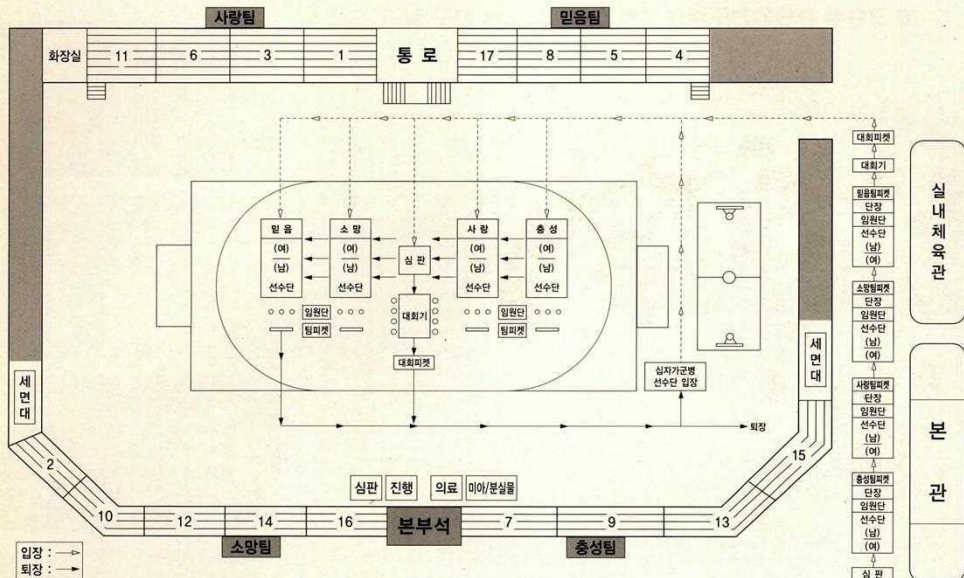
격이 나에게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 바 아버지라 부르며 참된 축복 속에 거하게 됩니다. 참된 평안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기쁨의 생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인간의 힘이나 인격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가난해지길 원치 않습니다. 애 통함을 싫어합니다. 온유함보다는 고집을, 의도하는 자기 욕망을, 굴복하여 기보다 복을, 정결하기보다는 부패를, 평화보다는 전쟁을, 필박보다는 타협을 원합니다.

결국 '복'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삶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삶입니다. 의도하지 아니한 것이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힘들고 고달픈 계속 넘어지지만, 이것이 죽음여미의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기 우리 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01 충현체육대회 운동장 배치도



2001 충현체육대회 오시는 길

2001 충현체육대회 피켓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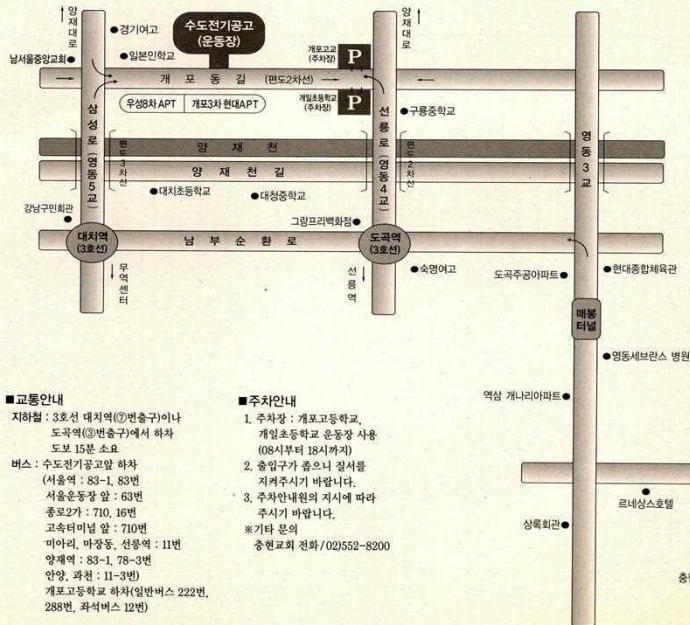
대학부 정혜영 자매 선정



2001 충현체육대회 전체 피켓걸에 대학부 정혜영 자매가 선정됐다. 현재 대학부 학생회 회계로 봉사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1. 행사 당일의 모든 진행의 시작은 오전 9시부터부터이다. 9시 전까지 오셔서 각 팀별 장소에 정렬하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장식에 참여해야 하는 각 팀 단장, 부 단장, 임원, 회계장, 선수(심자자 군), 학부모 임원, 관계자, 심사위원들을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하여 실내체육관 앞으로 모이셔야 합니다.
3. 당일 행사장은 「행사장지침」이라는 시지 부차 이외의 행사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승용차를 이용하실 때는 차량관리부원의 안내를 받아 「개도초등학교」와 「개일초등학교」의 운동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4. 행사를 위해 현장에서 취사나 차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오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약도 때: 2001. 5. 1. 오전 9시까지 곳: 수도전기공고 운동장



역삼 개나리아파트●

역삼역
사거리

출현교회

유아부 새 친구 초청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 영 자 (유아부 교사)



유아부는 매주 9시에 교육관 212호실에서 3·4세 어린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답니다. 아직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 부모님과 떨어지기 싫다고 울며 떼쓰는 아이도 있지만, 선생님과 부모님이 함께 기도하고 나면 이런 아이들이 변화되어 예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없이는 출석하기 힘든 유아부에는 멀리 천안에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참석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열심을 품으며 달려오는 부모님들이 계시기에 매주 200여명 이상 모여 반가운 만남을 가지며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자"라는 표어 아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답니다.

아직은 이리저리만 어린이들이지만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와 우렁차게 찬양할 때에는 참으로 귀엽고 감동적입니다. 앞으로 찬송가 부르기, 성경 암송, 성경 이야기 등 여러 행사 또한 모두를 잘 해내리라 기대합니다. 또 우리 성가대에는 글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부모님들이 불러 주시어 연습시킨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양육시키는 선생님들 또한 천국일꾼 양성을 위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833"는 말씀을 부어주고 기도하며 무장한답니다.

아직 유아부를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어려서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성장한다면 그들의 앞길은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겠지요? 유아부는 알지못한 아이를 찾아가서 못 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4월 29일 새 친구 초청잔치날에 결단을 내리세요. 유아부에서는 3·4세 어린이 모두를 환영합니다.

선생님의 기도로 자라나는 아이들

배 지 혜 (유치부 꽃7반 교사)

유치부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벌써 4개월이 다 되었네요. 처음에는 반이 정해지지 않아 뒤에서 아이들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찬양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사랑스럽고 귀했지만, 무엇인지도 파악하는 행동들이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참으로 친숙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처럼 순순해지는 걸 느낍니다.

생일을 맞아 앞에 나간 여자아이에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하고 묻자, "천사요!" 하고 참으로 예쁘게 대답하는 아이들. 언제나 "예수님이요" 하고 대답하는 아이들. 정말 그래요. 아이들과 함께 하다보면 내 자신은 숨 넘어가도 없어요. 어쩌면 아이들 앞의 내 모습이 원래의 내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기도로 달라진다는 한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던 아이들이 다음 해에 잘 나오게 되는 것은 새로운 선생님의 기도가 아니고 그 한 해 아이들은 품었던 선생님의 기도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요.

아이들이 참으로 사랑스러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오늘날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되네요. 내 일이며 '선생님' 하고 달려와 한 주간의 일들을 숨 넘어가듯 이야기할 테죠? 진정, 저의 기도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젖먹이들의 찬송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아부는 태어나서 24개월까지의 아기와 부모님들의 예배이다. 금년 처음으로 영아부에 부임하면서 "병든 사람 많아요. 열려 마세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의사. 밀고 구하면 고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란 찬양을 배웠다. 울동과 함께 배운 이 찬양은 내게 큰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이었다.

그 당시 영아부에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였다. 더구나 잘 나지 않는 감기와 유행성 홍역으로 많은 아이들이 결석을 하였다. 이러한 여러 문제가 있던 때인지라 부감인 나로서는 이 찬양이 예상대로 되지 않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 우리들은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를 할 수 있었다.

이 때 내게도 큰 시험이 닥쳐왔다. 막내 아들이 대장을 걸러야 하는 대수술의 결단이 필요한 때인지라 나 역시 영육간에 매우 민감했다. 외모는 건강하였지만 아직 문제의 대장은 완치가 되지 않았고, 의사로부터 대장을 완전히 잘라내어 소장과 항문을 연결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로 인해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젖먹이들의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도전이 되기도 하였다. 결국 수술은 하지 않았다. "밀고 구하면 고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한다.

아들은 지난 3월에 제임학을 하고, 2년 후배들과 동급생이 되었다. 자존심 상하는 일들과 바쁜 과목, 책들, 체육복 등등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 아빠를 원망하며 어려워하던 아들도 이제는 잘 적응하며 감사하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11:40)."

말씀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기를 기도하며, 계속적인 기도와 간구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 또한 "천국이 이인자의(어린 아이) 것이니라"(요 19:14)."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감사를 돌려 드린다.

영아부는 찬양과 유행으로 예배를 드리는 작은 가정들의 모임이며 예배이다. 우리들에게 찬송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 늘 찬양 드리는 것이 즐겁고, 이를 통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할 뿐이다. 인생의 시작을 영아부 예배로 시작하는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임을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

윤 석 민 (영아부 부감)

너의 그리스도의 편지



저는요, 그리스도인이요!

언뜻 스치거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얼마전 차를 타고 왕복 이차선을 달리고 있었다.

옆에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던 차가 일차선 도로로 접어들더니 내가 타고 있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잠시후 얼마를 달리고 있는데 앞 차의 운전자가 휴지, 신문지 등 차 안에 있던 오물들을 마구 창 밖으로 던지는 것이었다.

"어머머,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자주 볼 수 없는 '특별히' 무례한 사람이었다. 그 차를 유심히 살펴보는데 차 뒷부분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다.

"THE CHURCH JESUS CHRIST OF LETTER(그리스도의 편지전 교회)"

"어머머,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저래? 아니야, 저 사람이 차 주인이 아닐까 야~" 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시를 내라고 다닌다는 것이 조금스럽던 내 자신을 생각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은 여러 가지로 행동을 조심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었다. 성경을 들고 공공 장소인 지하철을 탈 때에도 많은 눈치(?)를 받게 된다. 피곤하고 지쳐도 노약자가 타면 즉각 일어나 자리를 양보해야 하고, 도움을 청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잔돈을 아낌없이 쥐여줘야 하며, 편하게 웃고 떠들 수도 없는 등... 이러한 일들은 당연히 해야하고 조심해야할 일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남들이 알 때에만 행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알려 달라는 차를 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시를 펴박대라! 그렇지만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 마음먹었다. 모든 행동에 있어서 남이 보든 안 보든 예수님 앞에서 행하듯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미라 기자)

